제주 현안 법안, 국회 논의 시동 걸린다

국회 행안위 내일 4·3특별법 개정안 등 첫 상정 보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포함… 제주 특례 검토 관심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의 국가경찰 일원화로 논란이 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관 법안에 대해 첫 상정 보고를 받는다.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각 법안의 내용과 발의 취지 등이 보고되는 자리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오는 18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별 법안에 대한 집중 심의에 들어간다.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총 321건으로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자치경찰제의 시행근거를 명확히 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된다.

오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의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화해조치 책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역사연구가와 법의학전문가 등이 진상조사에 참여해 자문하도록 하는 자문기구 규정도 신설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도 국가경찰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란이 돼 왔다. 제주도는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도에 대한 특례조항과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둘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휴양펜션업의 양수·인수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내용 등을 담았다. 국회=부미현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끝장토론 하겠다던 대통령, 답 없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연설서 현안 소통 촉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진 채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억울해 하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해야 한다"고 소통을 촉구했다.

경제문제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지금 추세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며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인데, 정부는 선심 쓸 일만 골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들 군 복무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달새 태풍 4개 한반도 강타 벌써 다음 태풍 '노을' 걱정

10월 중 발생 가능성 제기

올해 첫 가을태풍인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7일 오후 9시쯤 북한 함흥 부근 육상에서 소멸했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하이선을 포함해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여름태풍은 지난달 9일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60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5호 태풍 '장미'를 시작으로 제8호 태풍 '바비', 제9호 태풍 '마이삭' 등 3개, 가을태풍(제10호 태풍 '하이선')은 1개로 집계됐다. 태풍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6~8월은 여름태풍, 9~11월은 가을태풍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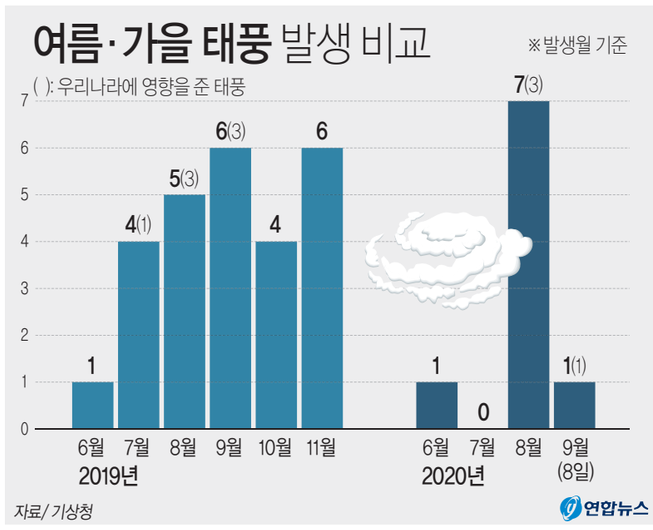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동향을 보면 발생 간격은 점점 좁아지고 태풍의 강도는 강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제11호 태풍은 다소 시일을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10월 중 발생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치예보모델을 보면 아직 새로운 태풍이 발생할 징조가 없어 언제 다음 태풍이 나올지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오는 11월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11호 태풍이 발생한다면 명칭은 '노을'이 된다. 노을은 북한이 제출한 이름이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달 21일 '가을철(9~11월) 날씨 전망'에서 올해 가을 태풍 한두 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하이선을 제외하면 한 개 정도는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지난해는 기상 관측 이래 1959년과 함께 가장 많은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으며 이 중 3개는 가을철에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온 제18호 태풍 '미탁'은 9월 말 발생해 10월 1~3일 우리나라를 지나갔다. 연합뉴스



정부 "거리두기 효과 재연장 주말쯤 결정"

6일째 신규환자 100명대로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에서의 강화된 방역 조치, 즉 '2.5단계' 거리두기가 한차례의 연장을 거쳐 종료 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당분간 상황을 보고 이번 주말쯤 재연장 혹은 종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신규확진자 발생 수가 6일 연속 100명대로 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지역발생 확진자 수를 언급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국내 발생 확진자가 98명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에 대해 "아직 (확진자 발생) 추이를 더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이번 주말쯤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2단계 방역 조처를 하는 만큼 정부는 오는 13일까지 프랜차이즈 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청'(廳)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사진)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또한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 청장과 강 차관의 임명일은 복지부 조직개편일 및 질병관리청 출범일인 12일이며, 김 차관의 임명일은 9일이다.

정 신임 청장은 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방역 최일선에 서 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져온 정 청장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주력해 달라는 당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강도태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려대 무역학과와 행시 35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강 대변인은 "첫 도입된 복지부 제2차관은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 등 핵심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주 제2공항은 도민의 숙원사업, 꼭 필요합니다!

제주 제2공항은 도민의 염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은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도민의 안전, 편의가 최우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그것은 바로 제주 제2공항 건설입니다.

1 안전은 투표대상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 환경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제주 제2공항 건설입니다.

2 제주 제2공항은 환경 훼손이 거의 없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내 단 하나의 오름도 훼손하지 않습니다.
예정지 내 동굴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첨단방식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새조사도 환경부 요구에 따라 추가로 조사 완료했습니다.

3 제주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5조원이 투입되는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생산효과로 제주의 경제를 살립니다.
환경수용력 제고와 친환경 시설로 지속가능발전이 기대됩니다.
제주의 미래 100년, 그것은 바로 제주 제2공항 건설입니다.

4 제주 제2공항 건설로 갈등을 끝내고, 화합을 이룹시다!

더 이상 지체되거나 건설을 미룬다면 지역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지금은 바로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화합을 이끌어 낼 시기입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